

# 시몬스, '뷰티레스트 블랙' 1000만원대 고가에도 '효자' 노릇

지난해 최대 매출 업계 1위 올라  
매달 평균 300개 이상 꾸준히 판매  
1000만~3000만원대 고가에도 수요↑  
예비부부·그랜드 제너레이션 가세

시몬스가 창립 이후 지난해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침대업계 1위에 오르는 데 효자 역할을 한 제품은 다름아닌 1000만원이 훌쩍 넘는 초고가 브랜드 '뷰티레스트 블랙'이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전반적인 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최고급 침대를 찾는 고객이 꾸준히 늘면서다.

7일 시몬스에 따르면 뷰티레스트 블랙은 2016년 출시 이후 월평균 200개 정도 팔리다가 지난해 1월 처음으로 '월 300개 판매'를 넘어선 이후 꾸준히 판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몬스는 지난해 3138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1992년 한국 법인 설립 이후 최대 실적을 거둔 바 있다.

시몬스침대의 최상위 라인인 뷰티레스트 블랙은 ▲켈리(Kelly) ▲데보라(Deborah) ▲마리옹(Marion) ▲루실(Lucile) ▲브리짓(Brigitte) ▲로렌(Loren) 6개 제품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제품 가격은 1000만~3000만원대 로 웬만한 소형차 한 대 값과 맞먹는다.

뷰티레스트 블랙은 시몬스의 기술력을 집약한 '포켓스프링' 중에서도 포스코산 삼중 나선 구조의 '어드밴스드-포켓스프링'을 사용해 미세한 지지력을 자랑한다. 이 포켓스프링은 수면도중 초당 0.0001m/s<sup>2</sup> 의 작은 뒤척임에도 기민하게 반응하고 신체를 세밀하게 지지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뷰티레스트 블랙 가운데 '켈리(Kelly)'와 '데보라(Deborah)' 모델은 '포켓 위의 포켓'이라고 불리는 '블랙 마이크로 포켓스프링'을 적용해 더욱 뛰어난 지지력, 탄성력, 쿠션감을 갖추고 있다.

포켓스프링을 감싸는 특수 부직포는 이탈리아 명품 직물 업체인 이탈리아트로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부직포는 스프링 하나 하나를 감싸 소음을 완벽



시몬스의 최고급 제품 뷰티레스트 블랙.

하게 차단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스프링 마모를 방지한다. 또 친환경 품은 자연에서 추출한 천연 식물성 소재로 만들었고, 엄선한 100% 린넨 원단은 최고급 자연 소재로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고 부드러운 촉감과 탁월한 흡수성, 통기성을 갖추고 있다.

50여 종의 최고급 소재는 한국 시몬스만이 갖고 있는 '조닝(Zoning) 시스템'과 만나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제공한다.

시몬스 관계자는 "침대는 객단가가 높고 소비주기가 긴데다 일반적으로 집에 한 두개 밖에 없어 상징적이어서 구매할 때 '신중한 선택'과 '과감한 투자'가 동시에 이뤄지는 영역"이라며 "경기가 불황일 수록 품질과 브랜드 신뢰도에 기반을 둔 소비자 선택은 더욱 명확해지는 특징이 있다. 이와 함께 '신혼침대'에 로망을 갖고 있는 예비부부들부터 재력과 체력을 함께 갖춘 '그랜드 제너레이션' (50년대 중반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80년대 초반의 X세대) 까지 프리미엄 제품 구매 열풍에 동참하면서 '크고 좋은 침대'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면과 건강이 직결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숙면에 매우 중요한

고급 침대를 찾는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업계에선 시몬스의 뷰티레스트 블랙을 스웨덴의 하이엔드 침대 브랜드 '덕시아나'(DUXIANA), 역시 스웨덴 브랜드인 '해스텐스'(Hastens), 그리고 영국의 최고급 브랜드로 포켓스프링을 처음 개발한 '바이스프링'(Vispring)과 함께 '4대 명품 침대'로 꼽고 있다.

킹사이즈 기준으로 2000만~8000만원인 덕시아나의 최고급 제품은 대당 1억원 이상이다. 해스텐스의 엔트리 모델 '마랑가'는 3000만원 대에 팔리고 있다.

한편 시몬스는 ▲라돈·토론 안전제품 인증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매트리스 ▲친환경 인증을 중심으로 한 '국민 매트리스 3대 안전 키워드'로 소비자들을 추가 공략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9년 당시 공식 인증 기관인 한국표준협회로부터 라돈 안전 제품 인증을 획득한 후 매년 판매하는 가정용 매트리스 전 제품에 대해 인증을 갱신하고 있다. 2021년에는 라돈(Rn-222)과 유사한 발암물질인 '토론'(Rn-220)에 대한 안전제품 인증도 획득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여경협, '판로 역량 강화지원' 본격화

맞춤형 MD 상담회 등 순차 지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이달부터 여성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2024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7일 여경협에 따르면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고, 여경협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여성기업의 매출신장과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우수한 여성기업 제품을 발굴해 지원한다.

여경협은 지난 3월 각 프로그램별 참가자 모집과 선정을 끝낸 바 있다.

올해는 사업 지원 대상의 실질적 만족도를 높이고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좋은 반응을 얻었던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판로역량 강화교육 ▲맞춤형 MD 상담회 ▲TV홍쇼핑 입점 지원 ▲SNS 홍보 영상 제작비 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 '판로역량 강화교육'은 여성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교

육 프로그램에 수출 전략 부문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 밖에도 여경협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여성기업 공동구매 플랫폼 '여우햇달'도 이달부터 새로 모집한 기업들 제품을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여우햇달'은 여성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와 여성기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여성기업 전용 플랫폼으로, 온라인 최저가 판매를 통해 합리적인 소비 기회를 제공한다.

이정현 여경협 회장은 "지난해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기업의 경영상 가장 어려운 분야로 판매선 확보 등의 마케팅관리 부문이 71.6%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해야 하는 일 역시 국내외 판로지원 확대가 최우선으로 꼽혔다"며 "내년에는 이러한 여성기업의 요구와 매년 선착순으로 마감되는 본 사업의 수요를 반영해 더 많은 여성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 소진공, 소상공인 창업·성장 등 지원

폴리텍대와 재기 등 도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한국폴리텍대학과 손잡고 소상공인 창업, 성장 등을 지원한다.

7일 소진공에 따르면 한국폴리텍대학과 '소상공인의 창업, 성장,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소진공의 정책지원 역량과 폴리텍대학의 직업훈련 노하우 등 각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앞으로 소진공과 폴리텍대학은 ▲소상공인 시제품 설계, 제작 지원 서비스 제공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전문기술과정' 지원 ▲두 기관이 운영 중인 지원사업을 통한 소상공인 직업훈련 지원 ▲창업, 성장, 재기를 위한 교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왼쪽)이 한국폴리텍대학 임준근 이사장 직무대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육과정 지원을 위해 협력기로 했다.

특히 찾아가는 맞춤형 기술지도 서비스인 '소규모사업장훈련'에 소진공의 '소공인지원센터'를 훈련장소로 제공해 소상공인의 역량과 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 전통시장 화재에 안전관리 적극 대응

중기부, '전통시장 시설·안전관리'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8일부터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지원 대상 시장을 모집한다.

7일 중기부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 시설 구축을 위한 '노후전선정비' 및 '화재알림시설설치' 사업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전통시장 전소 피해 등으로 높아진 전통시장 안전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수요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사업 내용을 개선했다.

우선 소방관서로 화재 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

업은 소방관련법(소방시설법, 소방시설공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설비의 세부규격을 명시했다.

기존엔 '화재알림설비규격' 관련 규정이 없었지만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및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7)을 준용한 제품은 허용키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화재알림시설 성능 및 안전기술 기준을 명확화함으로써 화재예방시스템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추가로 확보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효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내 전기설비 개선을 지원하는 '노후전선정비사업'은 그

동안 시장 단위로 신청·지원했지만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결과 전기안전 'E'등급을 받은 개별점포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영업점포의 30% 이상이 필수 신청 요건이었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화재안전점검 결과 전기분야에서 D·E등급을 받은 취약 시장의 경우 영업 점포의 20% 이상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업 수행 시공사는 공사 진행 전과정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지역본부)의 자문 및 검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전통시장 및 점포는 5월3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 코웨이, '비렉스 기획전'서 안마베드 등 선보

김원호·심진화 부부 출연

코웨이가 오는 8일 오전 11시 코웨이 라이브커머스 채널인 '코웨이Live'에서 코웨이페스타 특집으로 김원호·심진화 부부와 함께하는 '비렉스 라이브 기획전'을 진행한다.

7일 코웨이에 따르면 본격적인 이사와 결혼 시즌을 맞아 오는 5월까지 코웨이페스타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코웨이가 진행하는 연중 최대 규모의 프로모션으로 코웨이 전 제품 렌탈료 할인과 타임 특가 세일, 경품 증정 등 다양한 혜택으로 코웨이 제품을 만

나볼 수 있다.

코웨이페스타 특집 라이브 방송에서는 비렉스 인기 제품인 안마베드와 척추베드, 펌프체어를 선보이며, 사은품 증정과 특별 할인 등 풍성한 혜택을 준비했다.

먼저, 코웨이Live 비렉스 기획전에선 안마베드와 척추베드 렌탈 또는 구매 고객 전원에게 약 35만원 상당의 에어 다리 마사지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해당 제품 렌탈 고객에게는 1년간 렌탈료 반값 혜택을 제공해 월 렌탈료 4만원대의 특별 할인가로 선보인다.

/김승호 기자